

타인의 인정을 통해 존재감 획득

- 타인의 시선을 의식, 너무 튀지 않게 남과 비슷하게 행동.
- 착한 사람 콤플렉스.
- 공감이나 자기 성찰은 부족.
- 키워드 : 배려, 순응, 모범

소속감을 통한 안정

- 한국 사회에 적합한 '조직형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와 성격.
- 인생의 목표는 가정의 화목, 행복, 건강.
- 기존 틀에 충실, 큰 변화 거부, 새로운 시도 회피.
- 카멜레온적인 상황 적응. 부하뇌동처럼 비춰지기도 함.

리얼리스트인 당신은 타인의 존재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변화에 아주 뛰어납니다. 당신에게는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하는 따위의 소속과 스펙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유명한 사람을 안다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안다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당신은 또 남이 나를 믿는지 믿지 못하는지에 무척이나 신경을 씁니다. 당신에게는 내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인간관계나 일에서 정해진 관습이나 규범에 충실하려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당신은 주어진 상황과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려 애씁니다. 그리고 타인의 마음에 잘 맞추어 주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다고 할 정도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하며 남을 돕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보람을 느껴서 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평가를 하면 쉽게 상처를 받고 서운해합니다.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럴 듯해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의 지배적인 상황에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듯 하나 사실은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남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왕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특정 인물이나 과제에 강한 열정이나 확신을 느끼며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행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한 한 현실을 유지하고, 정해진 틀이나 규범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일상적이며 규범에 맞는 일은 무리 없이 수행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당신을 힘들게 하므로 새로운 시도는 피해갑니다.

현실적인 삶의 논리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직장인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향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틀에 충실하면서 대세를 찾고, 또 그것에 맞추려 합니다. 자신의 일이나 인간관계를 항상 상황의 논리에 맞추어 풀어냅니다. 리얼리스트인 당신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유지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리얼리스트인 당신이 릴레이션과 갭이 크게 벌어졌다면 지금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조건 공감하고 말 걸어 주기를 바라며 관심을 갈구하는 상황입니다. ‘아픈 것이 청춘입니다’, ‘잠시 멈추면 보이는 것들’ 등과 같은 이야기가 마치 당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으로 ‘힐링’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리얼리스트인 당신에게는 관계가 전부이고, 사회생활의 핵심이기에 다양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러나 조직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오히려 관계에 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관계라기보다는 타인의 관심이나 애정, 인정을 얻으려는 호소처럼 보일 뿐입니다.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실망과 불쾌감, 낙담을 안겨줍니다. 이럴 때 당신은 누군가 특정인을 통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생각하면서 백마탄 영웅을 기대합니다.